

코텍 코퍼레이션, 해양·혐기성 소화 시장 겨냥한 바이오기반 필름 제품 출시

기사등록 일시

【세인트 폴(미 미네소타 주)=BW/뉴시스】

미 미네소타 주에 소재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업체인 코텍 코퍼레이션(Cortec(R) Corporation)은 에코오션(EcoOcean™) 출시와 상용화 소식을 발표한다. 이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은 환경적, 성과 혜택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유연성과 강력함, 상용적인 저온 뒷마당 퇴비화, 연간 77%의 재생 원자재 비중, 무산소와 해양 생물분해성 등의 장점을 고루 겸비하고 있다.

에코오션은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 수지 기술 뿐만 아니라 미 미네소타 주 케임브리지와 크로아티아의 벨리 마나스틸에 위치한 코텍 압출 공장에서 수년간 개발작업을 통해 얻은 생산, 처리 혁신기술의 결과로 탄생했다. 이 새로운 에코오션 필름과 봉지는 기타 필름과 비교해 수 십 년 동안 잔존해 온 환경과 성능 간 격차를 크게 좁혀준다.

보리스 미크식(Boris Miksic) 코텍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는 “에코오션은 특히 세계 연해안에서 연포장 사용의 혁신을 선두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적으로 에코오션은 퇴비화 또는 산소결핍 혐기성 소화조에서 분해된다. 하지만 아직도 플라스틱은 쓰레기 투기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지역에서도 수로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에코오션은 거의 모든 의도, 비의도적 분해 방법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다. 매립지에서 에코오션의 재생 비중은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퇴비화에 있어 에코오션은 자연적이고 안전하게 신속한 혐기성 생물 분해를 촉진한다. 이 필름은 혐기성 소화 시스템 또는 메탄 생성 매립지(WtE)에서 단 15일 만에 분해된다. 에코오션은 다음과 같은 표준 및 사양을 비롯해 수 많은 인증 실험을 거쳤다.

ASTM D 7081: 해양환경 생물분해를 위한 표준사양(Standard Specification for Biodegradability in Marine Environments)

ASTM D 5511: 혐기성 생물분해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Standard Test Method for Anaerobic Biodegradation, 15일)

ASTM D 6400: 상용 퇴비화를 위한 표준사양(Standard Specification for Commercial Compostability)

에코오션은 조만간 70개 국가에 표준규격,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 코텍 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코텍 코퍼레이션(Cortec(R) Corporation)은 혁신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업계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코텍은 미국에 5개, 유럽에 1개 공장과 70여개 국가의 영업망 파트너를 통해 450 개 제품을 제조, 전세계에 공급한다. ISO 9001, ISO 14001:2004, & ISO/IEC-17025 인증을 받았다.

사진, 멀티미디어 갤러리는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6822033&lan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 연락처:

코텍 유럽 광고에이전시(Cortec(R) Europe Advertising Agency)
안나 유라가(Ana Juraga), +385-1-4854-595
ana.juraga@ecocortec.hr

또는
코텍
클리프 크라코에(Cliff Cracauer), +1-651-429-1100, 내선: 181
cliff@cortecvci.com

또는
기술 담당
리타 카샨(Rita Kharshan), +1-651-429-1100, 내선: 148
rkharshan@cortecvci.com